

사무엘을 부르심

성경 사무엘상 3:1-14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영적으로 강건한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까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엘리의 가정이 아닌 사무엘 가정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은혜의 찬양 201장)

1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2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케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후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찬송가 524장)

1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2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3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진리시로다

후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 읽기 사무엘상 3:1-14

- 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 2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 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와 전 안에 누웠더니
- 4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 5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 6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이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 7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와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 8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 9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 10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 1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 12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 13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 14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본문 배경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상(환상)을 보이시는 일도 거의 없을 정도로 영적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등불과 같이 밝게 빛나고 계셨지만,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모시고 있던 아이 사무엘에게 여호와와 음성이 들렸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소리라 착각하여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줍니다

다. 하나님이 네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 어두움에 빠져 있지 말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 관찰

1 대제사장 엘리가 다스리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1절)

답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까.

해설 엘리는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2절). 눈이 점점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노안이 왔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 시대는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1절). 대제사장인 엘리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엘리의 영적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엘리 시대의 영적 현실이었고 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2 엘리는 왜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았을까요? (13절)

답 엘리는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해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대제사장 엘리 집안의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이 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13절).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자녀들은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삼상 2:17). 또한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했습니다(삼상 2:22).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적절한 훈계와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영적으로도 무기력했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말씀 적용

- 1 최근 큐티, 기도, 예배 등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든 구절이 있다면, 가족과 나눠 보세요.
- 2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작성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내용을 가족과 나누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3-2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

유라혜

♩ = 120

A D E7 A D E7

우 리 가 알 거 니 와 하 나 님 을 사 랑 하 는 자

5 A D C#m₃ F#m D B/D# E7

곧 — 그 의 뜻 대 로 — 부 르 심 을 입 은 자 — 들 에 게 는 —

9 A D E7 A D E7

모 든 것 — 이 합 력 하 — 여

13 A D C#7₃ F#m Bm E7 A

선 을 이 루 느 니 라 — 로마 서 팔 장 이 십 팔 절 아 멘 —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 시력이 선명해 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은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